

고 지정환 신부 제6주기 추모행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본격 착수

대한민국 치즈 수도 임실군 있게 한 ‘임실치즈 아버지’ 협동·나눔 정신 되새겨

오늘날 ‘치즈 하면 임실’, ‘임실 하면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을 있게 한 임실치즈의 아버지 고 지정환 신부의 제6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지난 12일 열린 추모행사에는 심 민 군수와 이창식 치즈농협조합장을 비롯하여 신부님과 치즈 제조를 함께한 사람들, 치즈마을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모행사는 임실성당 사목협의회 주관으로 추모사, 신부님 영상 상영,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고 지정환 신부의 협동정신과 나눔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염속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벨기에 출신으로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고 지정환 신부는 당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임실 주민들을 위해 신앙 두 마리의 산양 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1967년 마침내 치즈 개발에 성공 오늘날의 임실N치즈산업 기틀을 마련하며 임실군을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로 도약시킨 선구자로 기억되고 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흐른 지금, 임실은 신선치즈와 숙성치즈, 발효유와 무가당 요거트 등을 아우른 임실N치즈 명품브랜드를 앞세워 전국 각지에 유제품을 공급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으로 자리 잡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을 있게 한 임실치즈의 아버지 고 지정환 신부의 제6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12일 열렸다.

았다.

군은 이에 더 나아가 고 지정환 신부가 그랬듯이, 치즈 산업 고도화를 위한 담대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홀스타인 젖소의 원유를 활용한 치즈 산업의 토대 위에,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이 높아 영국 황실에도 공급되었다고 하는 저지종 젖소의 원유를 활용한 유제품 생산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실만의 더 특별한 프리미엄 치즈를 전국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임실N치즈’를 테마로 한 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 2015년 1회 축제에는 10만여명이 방문했으나, 이후 해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10회를 맞이한 축제 기간에는 58만여명의 관광객

이 대거 몰리며 전국적인 축제로 명성을 높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 3대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됐다.

또한, 2023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고 지정환 신부와 임실N치즈의 역사를 담은 임실치즈 역사문화관과 유럽형 장미공원을 조성해 지난해에만 256만명이 넘게 다녀가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심 민 군수는 “당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임실이 지정환 신부님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로 우뚝 섰다”며 “비록 신부님은 떠나셨지만 신부님께서 증시하셨던 공동체와 도전 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야간·공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해 추진

남원시는 야간·공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4월, 지역 내 필수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린 바 있으며, 이번 공모는 실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서를 발급받은 후 야간 및 공휴일 소아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단순한 공모를 넘어 남원시가 시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 준비한 결과물로, 시는 지속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이 물론, 보건복지부 등 상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기준과 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 지역여건이 반영된 개정 지침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지정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정 절차는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 이상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해당 기간 내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 보건소는 신청기

관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접수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진료 개시 15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고한 후 최종 지정을 받아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남원시는 2025년 6월 2일 개소를 목표로 차질없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보건지원과 최민자 과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지정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경식 시장은 “앞으로도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으며, 남원시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양지천 사진 공모전 개최

‘사계절 양지천에 반하다’ 주제

순창군에서는 ‘사계절 양지천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2025년 제1회 순창군 양지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사계절 양지천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순창읍 양지천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며 꽃잔디, 수선화, 톨립, 벚꽃, 야간경관 등 양지천과 경천의 봄꽃에 대한 내용으로 참신하고 아름다운 풍광 등 순창군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제면 모두 해당된다.

공모전은 오는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지역과 연령에 제한 없이 순창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양지천 일대에는 꽃잔디와 톨립, 수선화 등 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참가자들이 사전에 작품 촬영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참가 희망자는 순창군청 및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방문(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1명(팀)에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며, 최우수상은 1명(팀) 100만원, 우수상 3명(팀) 각 50만원, 입선 35명(팀) 각 10만원 등 총 4개 분야 40명(팀)에 8백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읍 양지천과 경천의 봄꽃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서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순창군의 이미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공모전에 참여해 우수한 작품이 출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새내기 공무원 대상 시정현안 공유 간담회 가져

남원시는 지난 11일 2025년도에 신규 발령 78명의 새내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새로운 시책사업 등의 고민도 해보는 2025년 시장과 함께하는 시정현안 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새내기 직원들은 먼저 봄을 맞아 관향투원에서 진행된다고 있는 관향투원 피크닉 봄에 참가해 관향투원의 멋진 정취와 풍경을 감상하며 모처럼 업무스트레스에서 벗어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장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시정현안 공유 간담회를 진행하며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보기도 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축산농가 연중 무료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지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의 적절한 부속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 부속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미부속, 부속증기, 부속후기, 부속완료 4단계로 구분된다. 축사 면적이 1,500㎡ 이상 규모의 농가는 부속도 검사에서 부속후기 또는 부속완료 판정을 받아야 하며, 1,500㎡ 미만 농가는 부속증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퇴비·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반드시 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주기는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시행해야 한다. 또한 농가는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500g)를 시료 봉투에 액비(500ml)를 물병에 담아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축사 주소, 축사 면적을 기재한 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종합검정실(신평면 대리로 154-5)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임실=전종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